

• 타운뉴스칼럼

천사는 불쑥 찾아온다

인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2년 전 회사 앞뜰에 빨간 장미 두 그루와 핑크 장미 두 그루를 심었다. 일 년 내내 장미를 즐겼다. 누군가가 뜰을 둘러보면서 흰 장미를 심어 보라고 했다. 마 음먹고 있던 차에 지난주에 Low's에 간 김에 흰 장미 두 그루를 사다 심었다. 꽃이 많이 달린 장미였으나 옮겨 심었더니 고개를 꼭 숙이고 있어 과연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었다.

다음날 장미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갔다. 차에서 내려 게이트를 열려고 하는데 오른쪽으로부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흑인 청년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간밤에 그곳에서 자고 일어난 모양이다. 인상이 그리 좋지 않다. 험상궂게 생겼다. 본능적으로 위협하다고 느꼈으나 태연하게 그를 향해 다가갔다. 그의 선글라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참 멋지다. 그 선글라스 라이방(Ray-Ban)이지." 그러자 청년이 말했다. "아냐, 이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선글라스를 벗어 내게 직접 확인해 보라며 건네준다. 힐끔 그를 쳐다보니 양 눈썹 아래, 눈과 눈 사이, 콧등이 시작하는 지점 바로 위에 삼각형 모양의 검은색 문신이 보인다.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선글라스를 받아 한 번 들여다보고 다시 건네주면서 말했다. "너랑 참 잘 어울린다." 청년은 환하게 웃었다.

게이트를 열고 들어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뜰로 나왔다. 청년은 그 자리에 앉아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신경이 쓰였으나 짐짓 별 관심 없다는 듯이 화단으로 들어갔다. 어제 풍우리 몇 개 있었던 붓꽃이 활짝 피어 반겨준다. 그리고 어제는 고개를 꼭 숙이고 있던 하얀 장미꽃들이 고개를 바짝 치켜세우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여름부터 피기 시작한 국화는 반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뒤늦게 핀 국화가 노란 얼굴로 방긋방긋 거린다. 물조리개에 물을 받아다가 꽃들에게 뿌려 주기 시작했다.

물을 주고 있는데 그 청년이 내게로 다가왔다. 잔뜩 긴장하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가 웃으며 무엇인가-검은색의 물건-를 불쑥 내밀면서 받으라는 시늉을 한다. 얼떨결에 받고 보니 불펜이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왜 내게 이것 주냐고 물으니 주고 싶단다. "야 고맙다." "네 이름이 뭐냐?" 청년이 말했다. "내 이름은 엔젤이야."

"엔젤? 하늘에서 온 천사?" 그가 말했다. "맞아 난 엔젤이야." "야 너처럼 선글라스 낀 천사는 처음 본다." 그가 파안대소하면서 말했다. "바이! 멋진 하루 보내!"

내가 돌아서는 엔젤을 잡았다. "엔젤, 우리 그냥 헤어질 수는 없잖나? 기념 사진찍자."

엔젤은 자꾸 안경을 눈 아래로 내려서 찍으려고 했다. 왜 안경을 내리려고 하냐고 물으니 자기 코 위의 문신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안경을 써도 보인다고 하자 그래도 안경을 내리고 찍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럼 안경 쓰고도 찍고 벗고도 찍자고 했다. 문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참 설명하는데 내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그가 천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인상이 좀 험한 천사.

엔젤이 떠나고 뜰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한 여인이 유모차를 끌고 아기를 안은 채 지나가고 있었다. 무심코 바라보다 눈이 마주쳤다. 그 여인은 내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에게로 오라고 했다. 경계의 마음을 늦추지 않고 왜 나를 부르냐고 눈짓과 고갯짓으로 물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자신이 들고 있는 메모지를 가리키며 들여다 볼 것을 요구했다. 스페니쉬로 중얼중얼하면서.

잠깐 망설였다. 모른 척 돌아설까 가서 메모지를 들여다 볼 것인가. 어쩌면 이 여인도 천사일지 몰라. 그녀가 왜 빨리 안 오냐고 눈에 힘을 주면서 쳐다보고 있다. 메모지를 들여다보니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 묻는 것이었다. 전화기에서 주소를 찾아보니 바로 아래 길에서 우회전 하면 되는 거리였다. 그러나 그 건물은 길가에 있지 않고 길에서 좀 들어가야 했다.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나 아기를 안고 유모차에 짐을 가득 싣고 해매 다닐까 걱정이 되었다. 길가의 건물 앞까지 함께 가서 그 건물 뒤의 건물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고 돌아섰다.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했다. "천사는 가끔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곤 한다. 설사 천사가 온 걸 우리가 눈치 채지 못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사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천사는 전과 달라진 우리를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살면서 떠나간다."

chahn@townnewsusa.com

타운뉴스



제1498호 목차

타운뉴스 칼럼..... 13  
 커뮤니티 소식..... 15,17  
 세상에 이런 일이..... 19  
 나는야 1.5세 아줌마..... 20  
 법률..... 23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25  
 숨은그림 찾기,답/날말 퀴즈,답..... 26/51,26/53  
 전문인 칼럼..... 27,28,40  
 건강..... 37,40,41  
 짹짹..... 38  
 부동산/경제..... 39  
 자동차..... 43  
 한인업소 안내지도..... 44,46,62,64,66  
 요리..... 45  
 사진여행..... 47  
 종교..... 50  
 연예..... 51,53  
 안내광고..... 54,55  
 Domestic..... 56  
 여성..... 58,61

기주장익시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대표: 정영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TEL (562)622-9393**

타운뉴스® 배포지역

- 로스엔젤레스, 세리토스, 아테시아
- 다이아몬드 바 등 LA 동부
- 하시엔다, 로렌하이츠
- 오렌지카운티 전지역

광고문의 562.404.0027  
 info@townnewsusa.com

www.townnewsusa.com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www.timkimdental.com

터스틴

김건중 종합치과

38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 및 4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 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

Our clinic is DISINFECTED and SAFE to VISIT

일반·미용치과 전문

Maria Capiral, DDS  
 William Wang, DDS  
 Diemphi Nguyen, DDS

교정치과 전문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임플란트/구강외과 전문

Timothy Kim, DDS, MS, Ph.D

뼈가 부족한 분에서도 자가혈에서 채취한 PRP와 CGF를 이용한 뼈이식과 임플란트 수술 가능

- 3차원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무출혈·무통 잇몸치료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tel. 714-760-4988 949-679-6000  
 (San Diego) 760-757-9876 760-479-9876



NEW LOCATION TO BETTER SERVE YOUR DENTAL NEED

KEON-JUNG 'TIMOTHY' KIM  
 구강외과/치아이식 수술전문 ORAL SURGERY  
 D.D.S., M.S.D., Ph.D.

- 대한 구강악안면 외과 board certified specialist
- 인천 중앙 길병원 치과 구강외과 주임과장 역임
- 대한 구강악안면 상형재건외과학회 지도의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ostgraduate Fellow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역임
- Ne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 치아이식과 임상과장
- 미 치아이식학회 (AAID, AO)회원
- ADA, CDA, OODS, KADA 회원